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7. 15.(월) 15:00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 확인 및 현장의견 청취

- 복지부 제1차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의 시행 준비 상황 확인을 위한 방문(7.15.)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5일(월) 대전자모원(원장 김송희)을 방문하여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7월 19일(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8조에 따라 상담기관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대전자모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들에 대해 숙식·의료지원·상담·교육·산후조리·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수행할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과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대전자모원) 김송희 원장, 이혜경 사무국장,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대전자모원의 위기임신보호출산 시스템 시연을 포함한 준비 현황을 공유받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차질없이 시작되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지체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옥수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이길원 (044-202-3409)
			사무관	임예슬 (044-202-3429)
			사무관	정수진 (044-202-3419)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목적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7.19.) 전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원 등 종사자 격려
- 일시 : '24.7.15(월) 15:00~16:00
- 장소 :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대전자모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대전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 참석자 : (복지부) 제1차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장
(지역상담기관) 원장, 사무국장, 상담원 등
(아동권리보장원) 대리

1 개요

-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지원 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 보호

*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태어난 아동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2 주요 사업내용

-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 설치, 통합 상담전화(1308) 개통, 전담 상담인력 배치 등
-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 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안) >

